

새 시대의 새로운 출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32년과 함께

김혁수 서울문화재단 운영지원부장

culture 'art

연극계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추어 출범한 예술위원회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바꿔 말해서 연극계가 32년의 동반자인 문예진흥원을 거부하고 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을 요구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술위원회의 출범이라는 엄청난 변화에 한 획을 그은 연극계야말로 자긍심과 책임감을 함께 느껴야 할 것이다. 예술위원회에 대한 '믿음'과 함께.

문예진흥원의 탄생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가 출범했다. 1973년 3월에 설립하여 지난 32년 동안 우리 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활동했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이 새 시대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다시 태어난 것이다. 돌이켜보면 1973년 3월 30일, 문예진흥원은 민족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예술의 연구·창작·보급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거창한 취지로 탄생했다. 그렇게 탄생한 문예진흥원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 산하 기구였지만, 그 기본 재산은 동법 제19조 제1항의 문예진흥기금 모금 근거에 의해 전국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입장요금의 일정비율을 강제 징수하여 적립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사실 당시의 어려운 연극계 그리고 그러한 연극 공연장에서는 문예진흥기금의 납부 실적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당연히 다른 문화예술 장르에 비해 그 실적이 미미했다. 그런 반면에 기초 예술분야이면서 대중적 요소도 함께 하는 연극 분야의 경우, 문예진흥원을 통한 지원 혜택 및 관심이 빠르게 증가했다. 물론 지원방식이나 그 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에 따르는 문예진흥원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때마다 문예진흥원은 조직 개선 및 지원 사업에 대한 변화를 시도했다.

문예진흥기금의 폐지

이러한 변화의 노력은 연극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개발로 이어졌다. 물론 그 토대는 2004년 1월 1일부터 폐지된 문예진흥기금이라는 재원이다.

이 기금을 포함한 문예진흥기금 적립금 조성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문예진흥기금 적립금 조성 현황

구분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비중	비고
국고	73-97	-	-	-	-	-	-	-	124,700	23.66%	
공익 자금		66,000	-	2,000	3,000	-	-	-	70,000	13.28%	
모금/이자		96,287	7,591	30,603	45,160	27,155	35,560	69,768	21,430	332,554	63.07%
계		264,987	7,591	32,603	48,160	27,155	35,560	69,768	21,430	527,254	100

(단위: 백만원%)

한편 문예진흥기금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폐지는 되었지만 기존의 미납문제 처리가 미해결 문제로 남아있는데, 이는 알게 모르게 문화예술계 특히 연극계의 뜨거운 감자인 것만은 분명하다. 문예진흥원에서는 현 지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 및 상습 고액 미납자에 대한 법적조치 등을 통해 회수노력을 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러한 문예진흥기금이 이 땅의 연극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문예진흥원의 지원금에 의해 연극계가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서울연극제 및 다양한 축제의 산실

<서울연극제>의 탄생이야말로 연극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이 <서울연극제>는 1977년도에 창작희곡 및 창작극 공연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연극제>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다. 물론 문예진흥원의 발족과 함께 연극부문에 지원해오던 '창작극 지원'을 하나의 경연대회로 지원방식을 변경한 것이었지만 당시 연극인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었다.

1977년 9월 9일, 연극인회관 세실극장에서 차범석 작 이진순 연출로 <화조>가 그 첫 무대를 열면서 시작한 <대한민국연극제>는 11번째를 맞이하는 1987년부터 <서울연극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특히 1981년도에 문예진흥원 산하의 문예회관이 개관되면서 이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행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1986년부터 행사의 주최를 한국연극협회에서 맡게 되면서, 즉 연극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연극축제를 만들게 되면서부터 그 의미는 한층 커졌고 관심도 고조되었다.

아울러 당시 불어닥치던 세계화의 바람과 함께 명칭도 <서울국제연극제>로 변경되기도 했으나 연극인들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서울연극제>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연극인들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1988년도에는 당시 국가 행사인 <88 서울올림픽>과 연계하여 <88 서울올림픽 문화축전>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예산 확충과 함께 축제 형태를 가미시킴으로서 국제화의 단초가 되었다. 또한 1991년에는 문화부가 지정한 <91' 연극의 해>라는 대규모 행사와 어우러지는 연극인의 축제로 한발 나아갔고, 1993년에는 비경연 자유 참가작품을 선보이며 양적 확대를 시도했으며, 1997년에는 <1997 세계연극제 서울·경기>라는 색다른 이벤트로 관심을 모았다. 1999년에는 로버트 윌슨 연출의 <바다의 여인>이라는 작품에 우리 배우들이 출연하여 공연하는 자체 제작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렇게 한국연극협회 집행부의 변화와 함께 수시로 변화를 시도하던 <서울연극제>가 2001년에는 외적요인에 의해 잠시 흔들려야 했다. 당시 공연예술계의 몇몇 인사들은 다가오는 <2002 한일월드컵>을 염두에 둔 공연예술축제를 기획하고 있었다. 최초 국악·무용·연극·음악 등 공연예술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공연예술축제를 개발하여 <2002 한일월드컵>의 문화행사를 주도하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이었던 바, 그것이 바로 <서울공연예술제>였다. 하지만 결과는 국악계와 음악계가 빠진 연극과 무용만의 반쪽 축제였으며, 게다가 새로운 축제가 아닌 기존의 <서울연극제>와 <서울무용제>를 통합한 기형적인 모습이 되고 말았다. 그 기막힌 여파로 <서울공연예술제>는 2001년과 2002년, 두 해 동안 무용계와 연극계의 소모적인 힘겨루기만 벌였던 실폐한 행사가 되고 말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차마 해산시킬 수도 없어 애물단지가 될 뻔했던 <서울공연예술제>가 지금은 별도의 재단으로 독립하여 재탄생 했다는 사실이다. 아무튼 2001년과 2002년의 연극계는 공연예술계의 대표성을 갖지 못한 문예진흥원 및 관련단체의 인사 및 일부 문화예술인들 때문에 잠시 혼란스러운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다.

〈서울연극제〉는 경연대회였고 이에 시상제도가 있었다. 초기에는 관 주도의 행사가 다 그렇듯이 대통령상, 문화공보부 장관상이 있었고, 1978년에 문예진흥원장상을 비롯하여 희곡상 연기상 연출상 미술상 등 개인상이 추가되었다. 참고로 역대 대상 수상작으로는 〈물소리동〉(허규 작·연출, 극단 민예, 1977년), 〈멀고 긴 터널〉(이재현 작·김상열 연출, 극단 현대, 1978년), 〈농토〉(윤조병 작·방태수 연출, 극단 에저또, 1981), 〈적과 백〉(이재현 작·권오일 연출, 극단 성좌, 1983년), 〈봄날〉(이강백 작·권오일 연출, 극단 성좌, 1984년), 〈하늘만큼 먼 나라〉(노경식 작·임영웅 연출, 극단 산울림, 1985년), 〈부자유친〉(오태석 작·연출, 극단 목화, 1987년), 〈실비명〉(정복근 작·윤호진 연출, 극단 실험극장, 1989년),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이만희 작·강영걸 연출, 극단 민예, 1990년), 〈누군들 광대가 아니라〉(박평목 작·김도훈 연출, 극단 뿌리, 1992년), 〈남사당의 하늘〉(윤대성 작·손진책 연출, 극단미추, 1993년), 〈뮤지컬 '번데기'〉(오은희 작·이종훈 연출, 극단 맥토, 1994년), 〈이디푸스와 여행〉(장정일 원작·김아라 연출, 극단무천, 1995년), 〈날 보러와요〉(김광림 작·연출, 연우무대, 1996년), 〈남에서 오신 손님〉(박희준 작·김도훈 연출, 극단 뿌리, 1997년), 〈느낌, 극락같은〉(이강백 작·이윤택 연출, 연희단 거리패, 1998년) 등이었다. (해당연도가 없을 경우 대상 없음)

한편, 서울연극과의 경쟁력이 부족한 지역의 연극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경연대회인 〈전국지방연극제〉가 1983년도에 탄생했다. 현재는 〈전국연극제〉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는 이 행사는 아직까지 일반적인 경연대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나름대로 최선의 행사가 되기 위해 많은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도 했지만 문예진흥원과 한국연극협회가 주최하고 각 지역이 순회 유치하며 경연하는 기본적인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각 지역의 연극인들은 〈전국연극제〉를 유치하고 주관하면서 나름대로 행사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은 지방자치시대에 이르러 독자적으로 지역 축제를 개발하는 소중한 토대가 되었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축제는 500여 개이며 소모적인 일회성 행사도 산재해 있다. 그중에서 연극 관련 축제만 해도 30여 개가 넘는다. 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축제를 기획하고 치러내는 능력이 바로 〈서울연극제〉와 〈전국연극제〉에서 끌어낸 자산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코 많지 않은 투자로 이끌어낸 보이지 않는 문예진흥원의 간접 성과임에는 틀림없다.

〈표2〉 서울연극제 및 전국연극제 지원 현황 (단위:천원)

연도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서울연극제	11,752	22,728	24,256	25,282	31,510	45,424	64,191	64,187	122,181	148,654
전국연극제	-	-	-	-	-	-	64,778	66,036	64,538	72,233
연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서울연극제	157,459	452,432	104,817	125,000	161,700	164,500	164,500	164,500	164,500	164,500
전국연극제	95,864	99,367	124,426	127,516	133,063	143,108	142,585	166,030	169,290	190,290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서울연극제	164,500	164,500	180,000	180,000	서울공연예술제			300,000	300,000	3,673,073
전국연극제	190,290	208,550	215,850	288,000	315,400	389,115	386,245	386,245	386,245	4,425,054

하지만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다. 그러한 시점에서 볼 때, 현재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연극 관련 축제의 모습을 결코 고무적으로 볼 수 만은 없다. 나름대로 특성화를 추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비관적이다. 축제의 명칭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축제 안의 프로그램은 대동소이하다. 한 작품이 이 축제 저 축제 순회공연을 하며 매워나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프로그램 부재 현상이 치유되지 않는 한 축제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문예진흥원의 중복 지원을 과감히 중단해야 한다. 특히 서울공연예술제,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춘천인형극제,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등은 기금과 국고가 동시에 중복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지양되어야 한다. 지난 시절, 문예진흥원의 과감한 지역 문화예술지원정책이 위와 같은 축제의 발전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욕식을 가려야할 때이다. 그것이 지원에 대한 사후 평가이며 책임감인 것이다. 물론 일방적인 중단이 아니라 국고 또는

기타 중복 지원 기관과 협의하여 한 기관에서 완벽하게 전액을 지원하고 특성화시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일반 연극 공연 지원

문예진흥원 출범 이후, 연극분야에 대한 최초의 지원정책이었던 '공연예술창작활성화지원'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원 정책 및 방식의 변화는 물론 그 종류도 참으로 다양해졌다. 2005년, 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을 앞둔 이 시점에서 문예진흥원의 연극관련 지원사업을 훑어보면 우선 그 방식에 있어 연례정기공모사업, 별도·지정공모사업, 비공모사업, 기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연례정기공모사업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예술창작지원' 이 있는 바, 이는 창의성과 예술성이 높은 연극분야의 다양한 창작 발표 활동과 독창적이고 탁월한 기획 행사 및 예술축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뮤지컬(1,000만원~5,000만원), 창작극(1,000만원~3,000만원), 번역극 변안극(1,000만원~3,000만원), 마임 1인극(500만원~3,000만원), 연극제(1,000만원~5,000만원) 등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형화된 기성 예술장르의 틀에서 벗어난 독립·실험·대안적인 경향의 비주류 예술활동을 장려하는 지원 사업인 '다원적예술지원', 역량 있는 만 35세 이하의 차세대 예술 인력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하는 '신진예술가지원사업', 아동 청소년의 직접적인 예술체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문화 향수층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예술체험지원', 장애인 및 관련 단체에 의한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는 '장애인문화접근성확대지원',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민족문화예술교류활동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민족문화예술교류지원', 우리 문화예술을 해외에 소개하거나 해외 문화예술을 국내에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해외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하는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공연예술단체의 기관지 발간을 지원하는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 인터넷을 활용한 문화예술 정보화 작업을 지원하는 '예술자료정보화및보급지원', 특정한 주제나 목



1994년 '제12회 전국연극인대회' 및 '제18회서울연극제시상식' 장면

적을 갖고 추진하는 전통예술 관련사업에 지원하는 '전통예술발표및전승보급지원' 등이 있다.

〈별도·지정 공모사업〉중에서 연극 관련 지원사업으로는, 공연예술의 질적 향상과 창작 활성화를 위해 초연작품을 공모 형식으로 발굴하여 공연까지 연계 지원하는 <창작공연활성화지원>, 연극분야에서는 현재 <서울공연예술제>가 지원 받고 있는 전국규모예술행사지원, 연극배우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국연극배우협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무대예술인재교육사업', 예총과 민예총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간문예단체지원', 30년 이상 해당분야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한 65세 이상의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원로문예인복지지원', 전국 15개 광역시·도 자치단체 또는 산하 문화재단(서울시 제외)을 통해 지원하는 '지역문화활성화지원' 등이 있다.

그리고 문예진흥원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비공모사업으로는 공연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무대기술인인턴제도운영', 무대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무대예술인전문연수', 문예진흥원 예술극장에서 자체 기획하여 지원하는 '예술극장기획공연', 우수도서를 선정하여 전국에 보급하는 '우수예술전문도서보급' 등이 있다. 마지막 '기타사업'으로는 '계기성우수기획사업'과 '조건부기부금사업'이 있다.

이 사업들 중에서 문예진흥원의 예술위원회 전환과 함께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업이 바로, '지역문

화활성화지원' 사업이다. 중앙 문예진흥기금을 전국 15개 광역시·도 자치단체 또는 산하 문화재단(서울시 제외)에 직접 지원하는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지역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및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예진흥원이 밝히는 이 사업의 개요와 같이 지자체 역량을 신장하는 사업으로서 또한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면 현재의 지원 수준의 접근으로는 별 의미 없는 소모성 사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표3>과 같은 현재의 일부 지원 형식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원이 아닌 과감한 분배가 필요할 것이다.

표3) 2004년도 지역문화활성화지원 교부현황 (단위: 백만원)

시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금액	270	240	270	240	240	300	240	240	240	240	240	240	270	300		3,810

아울러 문예진흥원에서는 '지역문화활성화지원' 사업의 지역별 예산 배분을 문예진흥기금 모금실적, 문화예술분야 투자예산, 문화예술 지원실적, 전년도 문예진흥사업 평가결과, 인구 수 등을 평가 기준화하여 그 결과에 따라 3억 원, 2억 7천만 원, 2억 4천만 원으로 배분하였다. 이는 작금의 지역 문화예술의 환경적인 면에서 볼 때, 의미 없는 배분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보다 과감한 분배(특히 연간 500여 억 원에 달하는 복권기금의 적극적인 활용)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의 확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객 개발 지원

'사랑티켓'은 순수 공연예술작품(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 등)을 저렴하게 할인된 가격(현재 12,000원 권을 3,000원 할인된 9,000원에 구입)에 관람할 수 있는 공연예술 종합관람권으로, 1991년 연극의 해 집행위원회가 개발하고 문화관광부와 한국문예진흥원이 지원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사랑티켓' (매년 5월에 펼쳐지던 <사랑의 연극잔치>를 위한 종합 관람권)과 '서울티켓' (매년 9월에 펼쳐지던 <서울연극제>를 위한 종합 관람권)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만 활용되다가, 그 성공적

인 활용에 힘입어 '사랑티켓'으로 단일화하여 연중 시행하게 되었다. 아울러 연극협회 주관으로 연극 분야에만 시행하던 제도를 확대하여 현재는 좋은공연만들기협의회(연극협회, 국악협회, 무용협회, 음악협회, 전국민족극운동협회, 공연예술매니지먼트협회)가 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외형적 확대를 의미할 뿐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랑티켓'은 연극분야에서 활용(지원액기준 분야별비중:98.42% / 참가작품기준 분야별비중:84.1% / 2004년 11월 15일 기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3년부터는 서울에서만 시행되던 것을 확대하여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표4>와 같이 매칭펀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4) 2004년도 지역별 사랑티켓 예산 (단위: 천원)

구분	지역/예술제	지자체 확보 예산	지원액	비고
지역상설 사랑티켓	서울	-	2,200,000	실제 집행율: 114.1%
	부산	30,000	60,000	
	울산	30,000	60,000	
	충북	30,000	30,000	
	인천	30,000	60,000	
	경남	30,000	30,000	
	대구	20,000	40,000	
	대전	10,000	20,000	
	광주	20,000	40,000	
	전북	10,000	10,000	
	부천	5,000	10,000	
	소계	215,000	2,630,000	
	국가예술제 사랑티켓	전국연극제	0	
전국무용제		0	45,440	
소계		0	94,834	
지역예술제 사랑티켓	마산연극제	30,000	19,525	인터넷회원 운영비 별도
	거창연극제	50,000	50,000	
	소계	80,000	69,525	
총계		295,000	2,794,359	

문예진흥원은 이 '사랑티켓' 제도 즉 관객개발 지원 사업을,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보고 적지 않은 논란 속에서도 200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초기에 서울에서도 나타났던 그래서 연극인 자체 감사까지 시행했던 기본적인 문제점을 문예진흥원은 간과하고 있다. '사재기, 단체끼리 주고받기, 무조건 똑같이 나눠쓰기……' 등 서울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지금 몇몇 지역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문예진흥원은 이러한 문제지적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전국확대시행이라는 명분에 연연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이 '사랑티켓'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관련 시설 및 교육을 통한 지원

문예진흥원은 일반 지원 사업 외에도 자체 시설을 통해 연극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먼저 문예진흥원 예술극장을 빼놓을 수가 없다. 연극 무용 전용극장으로 대관 위주로 간접지원형식을 취하던 이 공연장이 현재는 자체 기획 공연을 겸하면서 또 다른 논란에 놓여 있지만 어쨌든 문예진흥원 예술극장은 1981년 4월 1일 개관 이후 지금까지 연극계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공연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극장과 소극장 그리고 연습실을 갖추고 있는 이곳에서는 공연 외에도 '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 및 '예술극장 전국무대기술인 현장연수' 그리고 '관객리포터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연극놀이교실 및 극장 탐방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은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외에도 미술관, 예술정보관, 문화예술연수원 등의 시설을 갖고 있는 문예진흥원은 연극관련 사업으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목요일의 연극강좌'를 비롯하여 문화행정, 예술경영, 무대예술 관련 장단기 연수 및 무대예술 아카데미를 통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수준 높은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정보자료 수집에 취약한 연극분야를 위한 각종 공연 대본, 팸플렛, 사진, 비디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은 문예진흥원의 예술정보관 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간접 지원인 것이다.

복권기금 예술사업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 폐지에 따라 대체 재원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거하여 복권 수익금의 일부(연간 500억 원 규모)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문예진흥원에서 별도로 <2005년 복권기금 예술사업>을

시행했다. 그중에서 연극분야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보면,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공연을 지원하는 '문화 소외지역전국순회사업', 전문문화공간이 아닌 현장을 찾아가 활동을 펼치는 '다중밀집지역작은문화장터사업', 문예진흥원에서 직접 선정하고 수상하는 '올해의 예술작품축제·시상', 문화지구 대학로에 복합공연장을 조성하는 '대학로소규모복합공연장조성', 지역 문화회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지방문화회관특별공연프로그램개발지원', 복합문화공간인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문화의집계층별체험프로그램지원', 문화소외계층을 비롯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지방문화원중심문화체험프로그램', 문화기반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을회관 등을 이용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도시저소득주민및농어민대상생활친화적문화환경조성', 아동보육시설 등 소외계층의 문화 예술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지원' 등이 있다.

이 복권기금 예술사업은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문화 예술 향수권을 확대시키는 사업과 문화예술의 창의적 기반을 확산하는 사업'으로 그 목적을 두고 세부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시행했지만, 그 시행 상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기존의 문예진흥원 사업과 별 차이가 없는 사업 및 일회성 사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2005년 현재, 연극분야에서 지원 가능한 사업들을 모두 훑어 보았다.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과연 이 사업들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없다.

과감한 변화를 시도한 지원 정책

사실 지난 32년 간의 문예진흥원 지원 정책 중에서 가장 과감한 변화를 시도한 것이 바로 '4대 지원 목표'라 하겠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다가온 문화예술의 다양화에 발 맞추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분야 별 분배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보다 차원 높은 문화예술지원이 되고자 시행했던 이 방식의 요점은 지원사업의 목표별 분류

였다.

문예진흥기금사업을 '예술창조 역량강화'·'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문화예술 교류 활성화'·'예술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4가지 지원 목표별로 분류한 후, '예술창조 역량강화' 부문을 예술창작지원·창작공연 활성화지원·다원적예술지원·신진예술가지원으로,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부문을 관객개발지원·찾아가는 예술지원·문화예술 체험지원·함께 하는 문화복지지원·지역문화 활성화지원으로,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부문을 통일민족문화교류지원·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으로, '예술의 보존과 계승' 부문을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예술자료정보화 및 보급지원·전통예술 발표 및 전승보급지원으로 세분하여 진행함으로써 장르별 분배의 시각을 벗어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현장 예술가들에게 혼돈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4대 지원 목표' 별로 결정된 2004년도의 지원 대상 현황은 <표5>와 같다.

〈표5〉 단위사업별지원 대상 현황 (2004년)

사업목표	예술창작지원	창작공연활성화지원	다원적예술활동지원	신진예술가지원
건수	358	46	47	57
비율(%)	31	4	4	5
사업목표	전국규모예술행사	기획전시공연지원	기간예단체지원	찾아가는 예술활동지원
건수	6	52	2	26
비율(%)	1	4	0,1	2
사업목표	통일민족문화교류지원	함께하는 문화복지지원	문화예술참여지원	문화예술체험지원
건수	25	52	1	128
비율(%)	2	4	0,1	11
사업목표	전통예술발표및전승보급	예술자료정보화및보존보급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건수	147	24	79	134
비율(%)	12	2	7	11

어쨌든 <표5>와 같이 진행된 2004년도 지원사업에 있어서, 연극분야의 주요 사업별 지원 현황(2004년)을 보면, 예술창작지원(51건, 581,000,000원), 창작공연활성화지원(18건, 510,000,000원), 신진예술가지원(4건, 57,000,000원), 계기성우수기획사업(4건, 68,000,000원), 찾아가는 예술지원(9건, 519,000,000원), 예술보존조사연구(8건, 88,000,000원), 문화예술체험지원(26건,

257,000,000원), 예술자료정보화 및 보급지원(1건, 6,000,000원), 함께하는 문화복지지원(9건, 69,000,000원), 통일민족문화교류지원(2건, 31,000,000원),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19건, 215,00,000원) 등이 있다. 물론 이러한 현황은 문예진흥기금 정기 공모지원사업 중에서 4대 지원목표별 분류 아래 확연히 연극으로 분류되는 단위사업만 나타난 것임을 밝히며 이를 비율로 표기하면 <표6>과 같다.

〈표6〉 분야별지원대상비율 (2004년)

분야	연극	문학	미술	무용	음악	전통	다원	문화일반	기금심의
지원건수	148	233	176	100	128	195	47	96	61
비율(%)	13	19	15	9	11	16	4	8	5

이렇게 <표5> 및 <표6> 그리고 위 내용과 같이 문예진흥원의 전체 지원사업 중에서 행사 성 사업 및 비공모 사업을 제외한 지원 사업 중, 연극분야의 지원 대상 단위 사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제 문예진흥원이 예술위원회로 전환되면서 특히 2007년도 사업부터는 지원 정책 및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관심은 한없이 높다. 바로 이 시점에서 문화예술계는 한 가지 중요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즉 아무리 예술위원회의 위원들이 장르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원 정책 수립 및 예산 배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는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설사 대의적인 차원에서 이를 해소한다 하더라도 문화예술위원회 산하의 분야별 소위원회의 입장은 해당 장르를 대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어려운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자못 궁급하다. 현명한 예술위원회의 방안을 기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난 날의 지원 현황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두고 싶다. 왜냐하면 이는 단지 2004년의 결과물이 아니라 문예진흥원이 32년 동안 예술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면서 구축해온 소중한 현재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예술위원회의 탄생 그리고 새로운 정책

드디어 예술위원회가 출범했다. 예술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고 사무처도 구성되었다. 이런 저런 소문으로 우려되었던 정치적·이념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비교적 무난하고 안정된 위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2003년 9월 19일에 있었던 '연극인100인성명'의 주요 골자는 문화부 소속 예술관련 기관 및 단체장의 민예총 계열 집중화 현상과 문예진흥원의 문화예술위원회 개정법률안 입법 절차 중단 요구였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곧이어, 범예술계의 화합과 예술위원회 전환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전국연극과교수의견서'(2003.10.10)와 연극인이 중심이 된 예술위원회 설립을 위한 '범예술인300인성명'(2003.11.15)이 대학로 정보 소극장에서 있었는데, 이때부터 그동안 반목되던 예술위원회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곧이어 예총과 민예총이 중심이 되어 발표한 '범문화예술계연합성명서'(2003.11.25)는 실질적인 추진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때, 일련의 석연찮은 속전속결 진행과정을 보면서 또 나름대로 일리 있는 신중론이 대세에 묻혀버리는 현실을 보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시대의 흐름'이라는 그 엄청난 흐름에 의해 오늘, 예술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시점에서 문화예술계는 문화예술위원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문예진흥원과 다른 획기적인 '변화'를, 그렇다면 그 '변화'는 어디서 어떻게 출발해야 하는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현장에서 거둬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연극계에서는 예술위원회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바꿔 말해서 연극계가 32년의 동반자인 문예진흥원을 거부하고 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을 요구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 '변화'를 요구하게 된, 지적사항은 무엇이었던가?

첫째, 문예진흥원의 독임제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었고, 그 처방 방법이 바로 현장의 문화예술인들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구인 예술위원회라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매년 500여명의 현장예술가들이 심의한 문예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을



1988년 <서울국제연극제> 포스터

말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동반하게 한다. 사실 문예진흥원의 집행 형식이 독임제였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 모두는 즉 원장, 사무총장, 주요 이사는 현장의 문화예술인이었다. 그럼에도 정책과 예산 집행권을 문제 삼으면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대론과 신중론은 잠시 뒤로 밀려난 채 예술위원회로 전환되었다.

둘째, 심의 방식·지원 기준·평가의 객관성을 지적했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완벽한 지원제도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회의도 있었다. 그러다보니 문예진흥원의 지원결과에는 불만이 따르기 마련이었다. 목소리도 다양했다. 예를 들어 소액다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다액소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사전지원과 사후지원이 대립되기도 한다. 또한 '올해의 예술상' '사랑티켓'의 존재를 논하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술위원회는 과거의 문예진흥원처럼 단위사업의 신설과 폐지라는 단기적 처방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미션과 흔들리지 않는 추진일 뿐이다.

셋째, 문예진흥원 사무국의 행정 방식을 지적했었다. 다수의 연극인들은 지원 서류의 간편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최선의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 충분한 심사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것만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의 첫 출발이라는 의견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혹자는 심사위원들의 자료에 대한 불성실한 접근과 기획사들의 지원서류 대리 작성 등의 문제를 들기도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심사위원의 책임감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사실, 연극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의 예술위원회에 대한 공통된 요구는 '변화'이다. 하지만 그 '변화'

의 결과 역시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다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연구되어 시행되는 지원 정책이, 보이지 않는 관행과 학연·지연 등에 의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던 작금의 현실에 대한 '변화'와 '믿음'인 것이다. '변화'가 예술위원회의 의무라면, '믿음'은 예술가들의 연극인들의 권리라 할 수 있다. 아무쪼록 이 '변화'와 '믿음'이 함께하는 예술위원회의 내일을 기대해본다. 돌이켜 보면 볼수록 예술위원회가 보여주어야 할 '변화'의 무게가 너무 크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술위원회의 출범이라는 엄청난 변화에 한 획을 그은 연극계야말로 자긍심과 책임감을 함께 느껴야 할 것이다. 예술위원회에 대한 '믿음'과 함께. 🍀